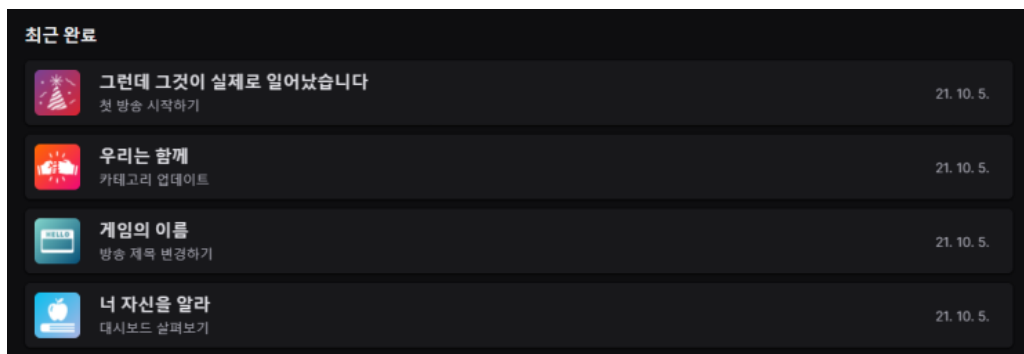


개인 방송 1일차라고 하니까 뭔가 그럴듯한데 사실 별거 없다 ㅋㅋㅋ  
예전부터 개인 방송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문득 해보고 싶어서 시도해 보았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나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뜻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방송도 기록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일기나 블로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송 도전 자체에 큰 거부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글에 비해 영상은 캠이나 모니터나 편집이나...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태 미뤄왔던 것 같다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기존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방송 품질이 나왔다  
역시 해봐야 안다  
나중에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조금씩 업그레이드해도 충분할 듯



스트리머 대시보드에 방송 업적 기능도 있음  
신기방기

방송한 플랫폼은 Twitch  
Twitch Studio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

처음에 자꾸 게임 소리랑 내 목소리가 겹쳐서 계속 나와서 프로그램 문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채널 창을 켜놔서 재귀 함수처럼 방송에서 방송이 흘러나오던 것...  
어디 가서 개발자라고 하기 쪽팔린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방금 전장 게임 방송 1시간 정도 해보고 왔는데  
딱 대학 과제나 공모전 제출하려고 영상 찍을 때 느낌이다  
평소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처럼 재미나게 말하는 건 어려워서  
그냥 게임하면서 방금 내 플레이의 이유를 말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나는 원래 게임할 때 별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비슷하게 반복되는 실수나  
무언가 알지 못해서 계속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썬 자동화 라이브러리 셀레니움을 배웠을 때부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근로가 지루하게 느껴졌을 때부터?  
42Seoul의 함수 코드 줄 수 제한에 맞게 코드를 줄이면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발자라고

언젠가부터 반복되는 건 가급적 매뉴얼화해서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뭐 어쨌든 계속 생기는 똑같은 문제를 고치고 싶어져서  
내 플레이를 다시 보고 고칠 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다  
잘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거나 강의 영상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칠지 알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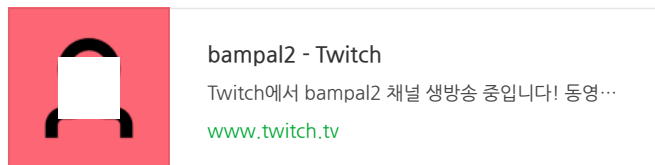
내 시점에서 플레이할 때랑 그걸 타인의 시점에서 다시 볼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내 플레이 다시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옆집 게임인 롤 관련 강의에서 얼핏 들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니 바둑에서도 복기라는 비슷한 경기 검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송으로 게임 내내 플레이어의 이유를 말해보고  
나는 그걸 일기장처럼 다시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보고자 한 것이다!  
시청자 한 명이 있어서 그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방송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한 명은 나라서 사실상 나는 시청자 없는 방송을 한 것이라고 한다

ㅎㅎ

괜히 서글퍼지는 이 기분...

<https://www.twitch.tv/bampal2>



꾸준하게 방송할지는 미지수  
당장 블로그랑 깃허브 커밋도 꾸준하지가 않아서...